

全國齒大學長協議會·齒協任員 連席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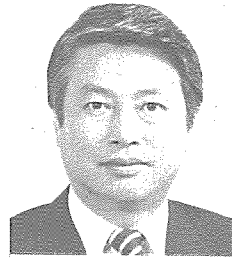
- 근본적 國試改善策 마련합의
- 追加試驗을 치르도록 노력을 다짐

국시대책을 위한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와 치협 임원과의 연석회의가 지난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근본적인 국시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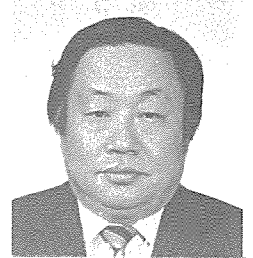
치협임원 및 치대학장, 치대교무과장등 23명이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에서 윤흥렬치협회장은 “400여명의 후배들에게 우리치과계의 치부를 먼저 알게한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임을 토로하고 그동안 보건사회부, 국회, 병무청등 관계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예비회원 및 교수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치협이 적극 이일에 나서게 되었음”을 주시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조한국협의회장은 “향후 이런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국시관계자료를 수집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서울·연세·경북·전남치대학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시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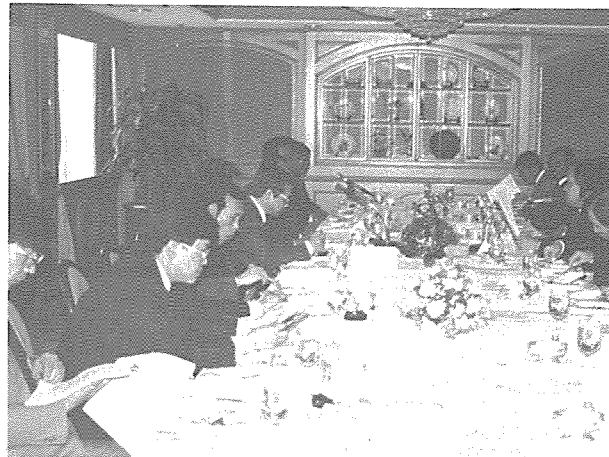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제43회 국시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는 한편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또한 협의회측 요청에 따라 치협에서 재시요청공문을 관계당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윤흥렬 치협회장〉



〈조한국 협의회장〉



〈지난 9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치과대학장협의회와 치협임원간의 국시대책 연석회의 모습〉